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초등/소년부

초등부 소년부 약 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소년부 교육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FUN FUN PLAY 친구들이 재미있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교육 내용 04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둘째 주
분반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English Bible Study 28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5
어린이 QT God's Time 36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7
어린이 QT God's Time 48

다섯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5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59
어린이 QT God's Time 60

펀펀 플레이
이달의 퍼즐 70
글자찾기 71

위드큐티스티커 73

교육활동 75

11월 교육내용
청지기

암송 구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 디모데전서 1장 12절 -

♥첫째주♥ "청지기의 자세"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며, 회개하는 청지기가 되어요.
♥둘째주♥ "물질의 청지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2절) *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셋째주♥ "감사로 찬양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역대상 16장 8절) *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해요.
♥넷째주♥ "재능의 청지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출애굽기 31장 3-4절) *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요.
♥다섯째주♥ "시간의 청지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16절) *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요.

실천 내용

1.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루를 마쳐보아요.
2. 평소에 내 생각대로만 결정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아요.

위드 WITH

11월 첫째주
2020년 11월 1일~7일

Memory time

청지기의 자세

첫째주

♥ **주제** : 청지기

♥ **암송구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오늘의 주제** : 청지기의 자세 ▷디모데전서 1:12-14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며, 회개하는 청지기가 되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❶ **바울을 강하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1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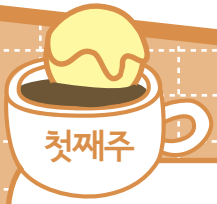
❷ **바울은 예수님께 왜 감사했나요? (12절)**

❸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고백했나요? (13절)**

❹ **바울은 무엇이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말했나요? (14절)**

❺ **바울은 예수님께 청지기의 직분을 받고 감사를 고백했어요. 청지기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가족(친구)들과 나누어 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이번 한 달 동안 나눌 말씀의 주제는 '청지기'에요. 청지기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였어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청지기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첫째,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해야 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께 충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께 충성해야 해요. 둘째, 청지기는 주인에게 감사해야 해요. 바울은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했어요.(12절) 중요한 일을 맡겨준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불러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셋째, 청지기는 주인에게 회개해야 해요.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음을 고백했어요.(13절) 이전에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한 것이죠. 이렇게 청지기는 자신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주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해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를 보여준 바울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감사하며, 회개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해요.

토론하기

Q1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Pray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올바른 청지기가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1:1-36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2.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 주었다."
3. 그 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4.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섹에서 만 명이나 무찔렀다.
5. 그 곳 베섹에서 그들은 아도니베섹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6.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베섹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버렸다.
7. 그러자 아도니베섹은 "내가 일흔 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아도니베섹 : "나의 주, 베섹", "베섹의 주"

with 관찰

1.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라고 묻자, 하나님은 어느 지파를 선택하셨나요? (2절)

2. 유다지파는 가나안 사람과 싸울 때, 어느 지파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했나요? (3절)

with 생각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라는 후임이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를 이을 지도자가 없었어요. 아직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걱정이 많았지요. 그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를 지목하셨고,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유다지파는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싸울 것을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지파만 지목하셨음에도 말이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에게 넘겨주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유다지파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싸울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죠. 언뜻 생각하면, 혼자 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면 더 큰 힘이 생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 지파의 손에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2:1-23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6.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17.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18.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19.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20.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21.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 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22.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23.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 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사사 :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영적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with 관찰

1.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자',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16절)

2. 다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겼다.(17절)
   ②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다.(18절)
   ③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었다.(19절)
   ④ 사사시대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반복했다.(20절)

with 생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겼고,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던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들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고, 이방 신들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지 지켜보시기 위함이었어요.(22절)

with 결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지 지켜보시기 위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길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지켜보시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때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길로 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길로 잘 걸어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3:1-11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7.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8.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넘겨 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여덟 해 동안 섬겼다.
9.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다.
10.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옷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옷니엘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옷니엘은 구산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11.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 죽을 때까지 사십 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9절)

2. 하나님께는 옷니엘을 통해 어떤 나라, 어떤 왕을 넘겨주셨나요? (10절)

with 생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들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빠져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까지 섬기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시고, 8년 동안 고통 속에 지내도록 하셨어요.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첫 번째 사사, 옷니엘을 세워주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을 잊고 지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돼요. 이것은 곧 죄를 범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실지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는 순간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3:12-31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2.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13.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14.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열여덟 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15.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16.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17.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18.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19.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20.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21. 그 때에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조공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with 관찰

1. 사사 옷니엘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나요?(12절)

□□왕, □□□

2. 본문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① 에글론은 암몬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여리고를 차지 하였다.(13절)
   ② 에글론은 18년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14절)
   ③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른손잡이 에훗을 세우셨다.(15절)
   ④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친 뒤에,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21절)

with 생각

이스라엘 백성은 옷니엘이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 평온했어요. 하지만, 옷니엘이 죽자,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었어요. 왼손잡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갔어요. 그리고 왕에게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한 후,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불룩한 배를 찔렀어요. 그리고 에훗과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모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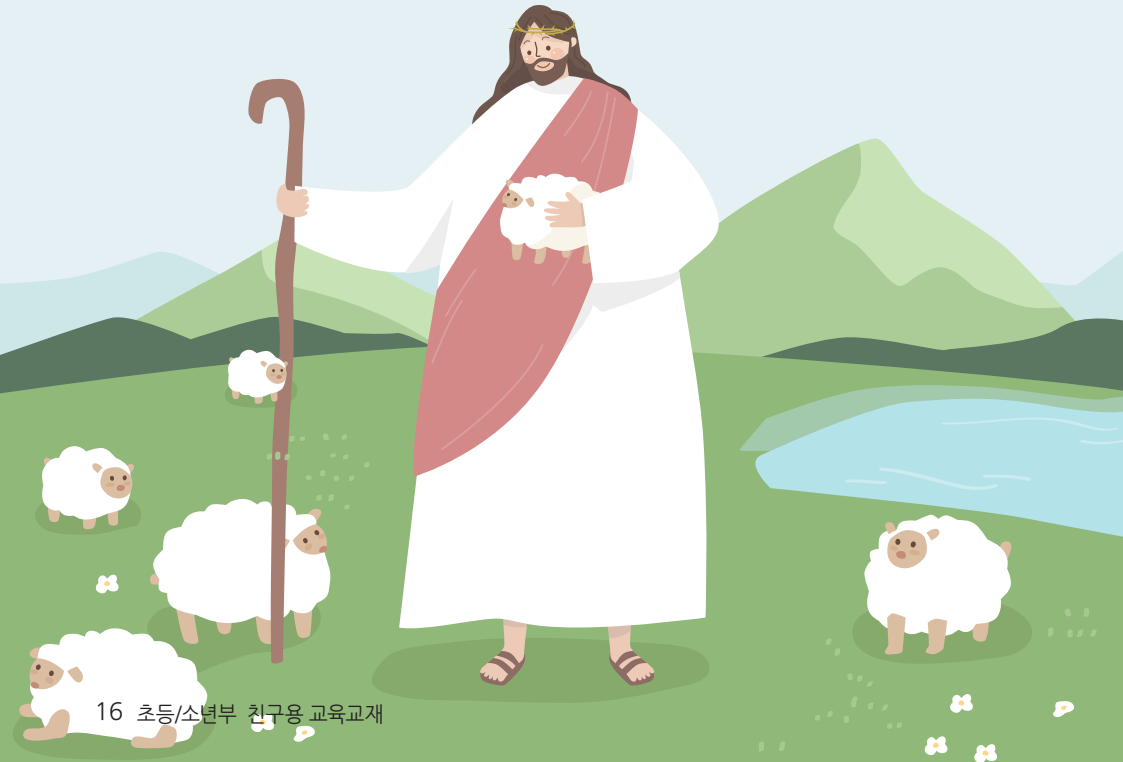
with 결심

하나님께서는 옷니엘 이후,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세워주셨어요. 에훗은 왼손잡이었어요. 원어의 뜻은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불구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권세를 뜻해요. 그런데 오른손이 불구자라고 하니 에훗은 하나님의 복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인 에훗을 사용하셔서 가장 강한 한 나라의 왕을 무너뜨리셨어요.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있기를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 디모데전서 1장 12절 -



위드 WITH

11월 둘째주
2020년 11월 8일~14일

Memory time

물질의 청지기

둘째주

♥ **주제** : 청지기

♥ **암송구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2절

♥ **오늘의 주제** : 물질의 청지기 ▷고린도후서 8:1-5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요? (1절)**

②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일을 함으로 칭찬을 받았나요? (2절)**

③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요? (5절)**

★ **교육 활동 -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준비물 : 활동지, 색연필, 사인펜

①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하트에 적어보아요.

②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나눌 수 있는지 적어보고, 적은 내용을 함께 나누어요.

③ 그림을 색칠하여 완성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둘째주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하지만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성도들은 굶주림과 가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마게도냐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도 힘들었지만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쁨으로 사용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돈을 모아 다른 지역에 있는 힘든 교회들을 위해 헌금하였어요.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 또한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물질의 청지기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였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헌신했지요. 친구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힘써 이웃을 돕고 헌신한 것처럼, 아동부 친구들 또한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의 소유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나요?

Pray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4:1-5:31 "주권자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2.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3. 야빈은 철 병거 구백 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4. 그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5. 그가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6.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만 명을 이끌고 다볼 산으로 가거라.
7. 야빈의 군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 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 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8.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9.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10.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모았다. 바락이 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주권자 : 국가의 최고 절대권을 가진 자

with 관찰

1. 가나안 왕 야빈의 군지휘관은 누구인가요? (2절)
①에훗 ②랍비돗 ③시스라 ④드보라

2. 드보라는 바락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6절)

" ... '너는 ☐☐☐ 지파와 ☐☐☐ 지파에서 만 명을 이끌고 ☐☐ ☐ 으로 가거라"

with 생각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내어 주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20년 동안 억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힘들어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사인 드보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나안 땅을 쳤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은 악한 일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과 구원을 모두 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6:1-40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1.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 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12.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13.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14.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15.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16.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17.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 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18.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기드온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11절)
   ① 여호수아 ② 요아스 ③ 다윗 ④ 모세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1-18절)
   ① 요아스는 아말렉 사람이다.
   ②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이다.
   ③ 기드온의 가문은 힘이 없고 약했다.
   ④ 기드온은 형제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with 생각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러,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하지만, 힘이 없고 나약한 기드온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주었고,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고 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항상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7:1-8:35 "기드온과 300용사"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레 언덕에 있었다.
2.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 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3.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다.
4.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5.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6.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삼백 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7.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8.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은 삼백 명만 남겨 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삼백 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기드온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요? (1절)

2. 최종적으로 기드온과 함께한 군인들은 몇 명인가요? (7절)

"... 물을 핥아먹은 ☐☐ ☐ 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with 생각

기드온이 거느리는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인의 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기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으로 인원을 줄이게 되었지요. 인원은 적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로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with 결심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어요.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9:1-57 "아비멜렉의 욕심"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2.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 보아 주십시오. 여룹바알의 아들 일흔 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 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 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3.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4. 그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일흔 냥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5.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룹바알의 아들 일흔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 남았다.
6.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의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상기시키다 : 다시 생각해 내다

with 관찰

1. 기드온의 아들은 몇 명이었나요? (2절)
① 7명 ② 10명 ③ 70명 ④ 77명

2.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간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은 누구인가요? (5절)
① 에벳 ② 요담 ③ 담요 ④ 가알

with 생각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아비멜렉은 욕심이 많았어요. 세겜 성읍을 혼자 다스리고 싶어 했던 아비멜렉은, 건달과 불량배들을 고용해 다른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말았지요. 그러나 막내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살아났고, 아비멜렉을 저주했어요. 이후,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결국엔 젊은 병사에 의해 죽게 되면서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지게 되었답니다.

with 결심

아비멜렉은 욕심에 눈이 멀어 형제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결국엔 자신도 죽게 되었지요. 이렇게 욕심이 커지면 죄가 되고, 죄가 커지면 사망을 낳게 돼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욕심내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NGLISH BIBLE STUDY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22절 (새번역성경) / 1 Thessalonians 5:16-22 (NIRV)

Gratitude—Letting others know you see how they've helped you.

고마움 -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표현하는 것.

16. 항상 기뻐하십시오.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9.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20.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21.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22.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Genesis 1:26-30 (NIRV)

16. Always be joyful.
17. Never stop praying.
18. Give thanks no matter what happens.
    God wants you to thank him because you believe in Christ Jesus.
19. Don't try to stop what the Holy Spirit is doing.
20. Don't treat prophecies as if they weren't important.
21. But test all prophecies. Hold on to what is good.
22. Say no to every kind of evil.

Vocabulary

Joyful- 즐거운
Give thanks- 감사를 드리다

Observation

Write the missing letters.

16 Always be j_ _ _ _ _.

18. G_ _ _ t_ _ _ _ _ no matter what happens. God wants you to thank him because you believe in Christ Jesus.

Interpretation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작성했어요.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세 번째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해요. 또한 받은 성령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라고도 하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고도 말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했기에,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러한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Application

As Paul recommends, we have to always be happy. If we are not happy for worldly reasons and we are happy because we belong to God, we can maintain our happiness.

And We have to never stop praying. This doesn't mean that we have to abandon everything that we are doing. It means that we have to keep praying whatever circumstances we are in. And we have to give thanks no matter what. We have to give thanks when we are in trouble and when we are not. Giving thanks is what God wants to us. Remember the people that God sent to us. Our parents, our teachers, our friends. What are they doing for us? Don't always forget to thank them and God.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해요. 우리가 세상의 조건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면, 이 기쁨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해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해요. 우리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들을 기억해요. 부모님, 선생님들, 친구들 등등. 그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Let's memorize

Let's memorize 1Thessalonians 5:1, NIRV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 Give thanks no matter what happens.
God wants you to thank him because you believe in Christ Jesus."

- 1Thessalonians 5:1, NIRV -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 디모데전서 1장 12절 -

위드 WITH

11월 셋째주
2020년 11월 15일~21일

Memory time

감사로 찬양해요

셋째주

♥ **주제 :** 청지기

♥ **암송구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역대상 16:8

♥ **오늘의 주제** 감사로 찬양해요 ▷역대상 16:7-11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해요.

❶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또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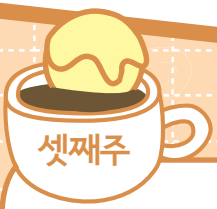
❷ **다윗은 무엇을 자랑하라고 권면했나요? (10절)**

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10절)**

❹ **우리는 언제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 하나요? (11절)**

❺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인해 늘 감사했어요. 친구들은 왜 하나님께 감사한가요? 그 이유를 다섯 가지만 적어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어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상징해요. 법궤를 다시 가져오게 된 다윗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사실, 다윗의 인생에 감사할 일들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젊을 때, 오랫동안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심각한 죄를 저질러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했지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이토록 많은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들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음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 왕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은 무엇이 있나요?

Pray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고 늘 감사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10:1-18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9.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 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10. 그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11.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13.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14.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15.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16.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17. 그 때에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18. 그 때에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막심 : 더 이상 이를 수 없이 심함

압제 : 권력이나 폭력으로 남을 꼼짝 못하게 누름

with 관찰

1. 암몬 자손이 어느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나요? (9절)

암몬 자손이 또 [ ][ ]와 [ ][ ][ ]과 [ ][ ][ ][ ]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12-13절)

① 하나님을 잘 믿음 ② 다른 신(이방신)들을 섬김
③ 아무도 믿지 않음 ④ 가만히 있음

with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들의 많은 억압으로부터 구해주셨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크게 실망하셨어요.

with 결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요. 친구들!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해주신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감사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11:1-40 **"함부로 약속하지 않아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8.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하여 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29.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30. 그 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신다면,
31.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32.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 주시니,
33.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스무 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34.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독녀였다.
35.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36.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서원 :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

무남독녀 : 아들은 없고 오직 딸만 하나 있음

with 관찰

1.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린 후 입다는 주님께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30절)

그 때에 입다가 주님께 ☐☐ 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2.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반긴 사람은 누구인가요? (34절)

① 입다의 아내 ② 입다의 동생 ③ 입다의 딸 ④ 입다의 아들

with 생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로 입다를 세워주셨어요. 입다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입다는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집에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 앞에서 입다를 반기는 사람은 입다의 하나뿐인 딸이었어요. 그래서 입다는 울면서 자신의 딸을 드리게 돼요. 그런데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조건을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입다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조건에 따라 맞춰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것을 잊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도 함부로 하나님께 잘못된 약속은 하지 않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12:1-15 "친구를 괴롭히지 않아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 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에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네 집을 같이 불태워 버리겠다."
2.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3.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 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4.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 무찔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5.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을 앞질러서 요단 강 나루를 차지하였다.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가게 해 달라고 하면, 길르앗 사람들은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6. 그에게 쉬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요단 강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 때에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는 사만 이천이나 되었다.
7. 길르앗 사람 입다는 여섯 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8. 그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9. 그에게는 아들 서른 명과 딸 서른 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출가시키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안에서 서른 명을 데려왔다. 그는 일곱 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10. 입산은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과 암몬 자손이 전쟁할 때 도와주지 않고 모른척한 지파는 어디인가요? (2절)

2.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칠 때 어떤 단어를 발음하게 했나요? (6절)

① 시볼렛 ② 쉬볼렛 ③ 싱볼렛 ④ 식볼렛

with 생각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찾아와서 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며 따졌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쟁에 승리한 업적만을 차지하고자 했어요. 결국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었어요.

with 결심

우리도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친구들이 잘한 일을 가로채서 대신 칭찬받으려고 하진 않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 누구도 위에 있거나 아래에 두거나 하지 않으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보다 약한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보다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13:1-25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주셨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
2. 그 때에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3.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5.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6. 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7.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8.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생략)

24.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25.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모태 : 태어나기 전 엄마의 뱃속

with 관찰

1.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악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손에 몇 년 동안 넘기셨나요? (1절)

□□년 동안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마노아의 가정에 보내준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24절)

①오손 ②육손 ③삼손 ④장손

with 생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해주셨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결국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 보내주신 삼손이에요. 삼손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먼저 구원의 길을 예비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 디모데전서 1장 12절 -

위드 WITH

11월 넷째주
2020년 11월 22일~28일

Memory time

재능의 청지기

넷째주

♥ **주제 :** 청지기

♥ **암송구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 ▷출애굽기 31:3-4

♥ **오늘의 주제** 재능의 청지기 ▷출애굽기 31:1-6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회막을 만드는 기술자로 부른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2절, 6절)**

② **하나님이 브살렐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3절)**

③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가족/친구를 위해 쓸 수 있을지 가족(친구)들과 나누어 보아요.**

★ **교육 활동 -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준비물 - 활동지, 펜, 가위

① 활동지에 있는 가렌더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ex)노래, 춤, 달리기, 공부, 게임, 만들기 등

②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친구)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친구(가족)들과 나눠보아요.

③ 가렌더 도안을 자르고, ⓧ표시에 작은 구멍을 뚫어요.

④ ⓧ표시에 줄(끈, 실)을 연결하여 가렌더를 완성하고, 집에 걸어두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무엇인가요?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 만들기에 소질이 있는 친구, 노래를 잘 부르거나 춤을 잘 추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재능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회막과 회막의 각종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어요. 특별히 이 일을 위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지요. 브살렐에게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고, 정교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3-4절) 그리고 오홀리압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셨지요.(6절)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재능을 사용하여 '재능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재능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족 각자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Pray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14:115:8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삼손이 딤나로 내려갔다가, 딤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2.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딤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3.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네 친척이나 네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맘에 쏙 들었습니다."
4.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5.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딤나로 내려가서, 딤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6. 그 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7.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주선 : 일이 잘 되도록 힘씀

with 관찰

1. 삼손은 딤나에 있는 블레셋 처녀를 보고, 부모에게 뭐라고 부탁했나요? (2절)

"...내가 딤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2.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삼손에게 그의 부모는 뭐라고 말했나요? (3절)

"...네 친척이나 네 □□ 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 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 로

맞으려고 하느냐?.."

with 생각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 중 유일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뱃속에서부터 사사로 택하시고 인도하셨지요. 그리고 그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더니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는 사사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했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여인에게 첫눈에 반해 그 여인만을 바라보았어요.

with 결심

삼손은 사사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백성을 돌보아야 하는데 이방인들의 지방인 딤나에 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의 눈은 블레셋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삼손은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고 여인만 바라보는 실수를 했어요. 우리도 가끔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기 보다, 세상의 좋은 것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마 6:33)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기로 약속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15:9-20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4.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 때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 오라기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15.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 들고, 블레셋 사람을 천 명이나 쳐죽이고 나서,
16.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천 명이나 쳐죽였다.
17.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 곳 이름을 라맛레히라고 불렀다.
18.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19.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20.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오라기 : 종이, 헝겊 등의 좁고 긴 조각

주검 : 죽은 사람의 시신

with 관찰

1.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후, 그 곳 이름을 뭐라고 했나요? (16절)

라 ☐ 레히

2. 삼손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나요? (20절)

☐☐ 년

with 생각

삼손은 자신의 장인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불태웠어요. 이 일로 블레셋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왔지요. 그러나 삼손은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 천 명을 나귀 턱뼈로 죽였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 샘물은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엔학고레예요.

with 결심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였어요. 복수심 때문에 시작된 잘못된 전투였지만, 그럼에도 삼손이 목이 말라 하나님을 부를 때 샘물을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는 우리지만, 자비로운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로 해요! 그리고 이후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연약한 나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_____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16:1-22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8.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19.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일곱 가닥으로 땋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20. 그 때에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 번처럼 뛰쳐 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21.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22.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삼손이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8절)

들□□

2.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았다. (18절)
② 그의 엄청난 힘은 지속되었다. (19절)
③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다. (20절)
④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감옥에 넣었다. (22절)

with 생각

삼손은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 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들릴라는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지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알려주고, 돈을 얻고자 했어요.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의 비밀을 알고자 했으나, 삼손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끝에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 힘이 머리털에서 온다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모두 깎게 하였고, 삼손은 힘을 잃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주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에 그는 전혀 힘을 쓸 수 없었어요.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with 결심

삼손은 사사라는 중요한 역할을 잊은 채 여인에게 빠져 자신의 비밀을 다 말하고, 위험한 일을 했어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에 두고, 돌보아야 하는데, 그는 늘 아름다운 여인에게만 관심을 뒀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보다 여인과 함께하기를 더 좋아했어요. 삼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의 힘의 근원임을 미처 깨닫지 못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16:23-17:13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7.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 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8.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9.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10.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일 년에 은돈 열 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11.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12.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 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13.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미가는 한 젊은이에게 무엇을 부탁했나요? (10절)

"...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 주시고, ☐☐☐이 되어 주십시오. 일 년에 은돈 열 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

2. 미가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어떤 착각에 빠졌나요? (13절)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에게 ☐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with 생각

미가라는 청년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돈이 없어지자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사람을 끝까지 저주해요. 그 이야기를 듣기 싫었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자신이 훔쳤음을 고백하고, 다시 돈을 돌려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을 혼내지 않고 칭찬한 후, 그 돈으로 은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어머니가 만든 신상과 함께 섬기기 시작하지요. 미가는 그 신상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 레위인을 흉내 내는 한 청년을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세웠지요. 그리고 미가는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신에게 복을 주실 거라 착각했어요.

with 결심

미가의 가정은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도 신상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모습을 일삼았어요. 사사 시대에는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대로 행동하던 때였어요.(삿21:25)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삼았지요.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 디모데전서 1장 12절 -

위드 WITH

11월 다섯째주
2020년 11월 29일~12월 5일

Memory time

시간의 청지기

다섯째주

♥ **주제 :** 청지기

♥ **암송구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15-16

♥ **오늘의 주제** 시간의 청지기 ▷창세기18:1-15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1절)

② 미련한 처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3절)

③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왜 다 졸며 잤나요? (5절)

④ 혼인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10절)

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이야기 해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이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 물질 등 모든 것을 주시며 관리하게 하셨어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 명의 처녀는 집 앞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 다섯 명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른 다섯 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이 떨어지자 준비하지 못한 다섯 명이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을 때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했어요.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명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 열 명의 처녀들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 중 지혜로운 다섯 명은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기름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다섯 명은 시간을 허비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성실하게 사용하고 있나요? 혹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어요.(엡 5:16) 시간을 아끼며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나누어보세요.

Pray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다섯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18:1-31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7.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기는 동안,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육백 명과 함께 문 어귀에 서 있었다.
18. 미가의 집에 들어간 다섯 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19.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20.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21.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어귀 : 앞

목상 : 나무로 만든 신상

with 관찰

1. 다섯 사람은 미가의 집에서 무엇을 챙겨 나왔나요? (17절)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

2. 단 자손들은 레위인 제사장에게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사장은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20절)

마음에 ☐☐ 했다.

with 생각

단 자손은 라이스 지방 땅이 탐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기회를 엿봤어요. 그리고 다섯 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지요. 정탐꾼들은 라이스 땅으로 가는 길에 레위인 제사장 한 명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라이스 지방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물어보았어요. 그는 그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훗날 단 자손들은 라이스 지방을 정복하기 위해 왔어요. 그리고는 이전에 만났던 제사장의 집에 다시 갔지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집은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단 사람들은 이 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이것들을 훔쳐가고 제사장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결국 라이스 지방을 차지했어요.

with 결심

단 자손들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게다가 그 우상들을 가지고 정복하러 간 땅을 차지했으니, 이 우상들을 더욱 굳게 믿었을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우상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1등하고 싶은 마음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에 간다고 하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며 하나님과 우상을 잘 구분해야 해요. 단 자손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과 우상을 혼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래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다섯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19:1-30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친절"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생략)

14. 그래서 그들이 그 곳을 지나 계속 나아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에서 해가 지고 말았다.
15.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16. 마침 그 때에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지방 사람인데, 그 때에 그는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다. (기브아의 주민은 베냐민 자손이다.)
17.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18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 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19.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0.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21.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생략)

with 관찰

1. 레위 자손과 그의 종은 왜 광장에 앉아 있었나요? (15절)

□□□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주지 않아서.

2. 결국 그들을 맞아들여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17절)

□□

with 생각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은 장인어른의 집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아내가 남편과 다툰 뒤 친정집으로 도망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레위인은 자신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데리러 가서 친절하게 설득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과 시간을 보낸 후 아내를 데리고 종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날이 저물어 기브아라는 지방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주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기브아 사람들은 친절을 베풀지 않았지요. 한 노인만이 그들을 딱하게 여겨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에게도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노인 또한 갈 곳 없는 레위인의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죄악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잊었던 기브아 사람들은 친절을 베풀 줄 몰랐지요. 도리어 그들의 행동은 악하기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 친절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죄악이 있는지 늘 점검하며 우리의 태도를 친절하게 유지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겠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다섯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20:1-48 "죄를 미워하는 삶"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41.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하니, 베냐민 사람들은 패색이 짙은 것을 깨닫고, 몹시 겁에 질렸다.
42.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 광야길로 방향을 돌렸으나, 퇴로가 막혔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력부대와 성읍을 치고 나온 부대 사이에 끼여 협살당하고 말았다.
43.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쳐부수었다.
44. 그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만 팔천 명이나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45. 베냐민의 나머지 패잔병은 방향을 바꾸어 광야 쪽 림몬 바위 있는 데까지 도망쳤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에서 오천 명을 이삭 줍듯이 모조리 죽이고, 기돔에까지 쫓아가서 덮쳐 또 이천 명을 죽였다.
46.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이만 오천 명이 그 날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47. 그러나 육백 명은 방향을 돌려 광야 쪽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 바위 있는 곳에서 숨어 살았다.
48.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이스라엘과 베냐민 중 이 전투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41절)

□□□

2. 베냐민의 용사 중 몇 명이나 죽었나요?(46절)

□□□□명

with 생각

기브아에 살던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방에 다른 지방 사람인 레위인이 머물게 된 것을 알고 그에게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그의 아내를 죽였어요. 레위인은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부 알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은 전투를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지는 듯 보였으나, 결국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을 들어 주셨어요.

with 결심

베냐민 사람들은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베냐민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그들 가운데에서 죄악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죄악을 미워해야 해요. 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아야 해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늘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는 우리가 되겠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다섯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사기 21:1-25 **"하나님의 생각을 여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9. 그래서 그들은 한 묘안을 생각해 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실로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있다.)
20.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21.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 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22.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들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오' 하고 답변해 주겠소."
23.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효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24. 그 때에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 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 곳에서 떠나 자기가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25.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수효 : 숫자

재건하다 :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다

with 관찰

1. 베냐민 자손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묘안을 내었나요? (21절)
   ① 이스라엘 처녀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한 것을 취소했다.
   ② 이스라엘 처녀들 중 베냐민 자손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처녀들을 모집했다.
   ③ 베냐민 사람들 일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도록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④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그들 중 아무나 붙잡아 가라고 했다.

2.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동했나요? (25절)

   [ ] 이 없었기 때문에.

with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어요. 그리고 많은 베냐민 사람들을 죽였지요. 그러나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베냐민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될까봐 걱정했어요. 그들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내를 찾아주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그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맹세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여자들을 잡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냐민 사람들은 그렇게 아내를 구했어요. 그리고 대를 이어갈 수 있었지요.

with 결심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안쓰럽게 여겼어요. 그러나 그들의 대를 잇기 위해 잘못된 일을 권유했어요. 실로에 춤추러 나오는 여인들을 강제로 잡아가도록 한 것이지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견이 아닌 자신의 뜻에 맞는 대로만 행했어요. 왕도 없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은 결정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의견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나의 기도 :

다섯째주

가족과 함께하는 Morning Time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말씀 <마태복음 16:13-17, 새번역>

13.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14.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1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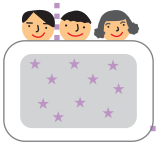
사랑하는 OO아(야), 잘 잤니?

하나님께서 OO(이)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어.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었니? 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OO(이)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걸어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OO(이)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행복하게 예수님과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OO(이)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째주

가족과 함께하는 bed time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찬양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어노인팅〉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 주의 거룩하신 집에서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 주와 살아가게 하소서
어찌 아름다운지요 / 아침이면 그 곳에서 눈을 뜨고 / 달과 별이 그 곳에서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 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 그 기쁨으로 /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 / 그 사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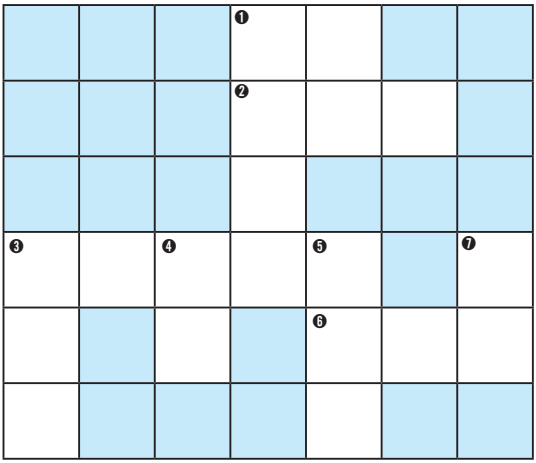
사랑하는 OO아(야), 오늘 하루 잘 보냈니?
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 가사를 들어보니 어땠니?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OO(이)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야. OO(이)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OO(이)에게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는 OO(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늘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OO(이)가 되면 좋겠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OO(이)와 함께 하여주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방금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OO(이)에게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OO(이)가 되게 해주세요. 늘 주님과 살아가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OO(이) 되게 해주세요. OO(이)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UN FUN PLAY

이 달 의 퍼 즐

가로세로 낱말퀴즈



가로열쇠

❶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지도자 (출애굽기 3장)
❷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셋째 아들로 장자인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달아났던 사람 (사무엘하 13:28)
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OOOOO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10)
❻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선지자 (사사기 4:5)

세로열쇠

❶ 민수기 26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조사를 했던 평지 (민수기 26:2,3)
❷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를 가리키는 말 (예레미야, 하박국, 나단, 이사야, 엘리사 등)
❹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쌌던 보자기의 색깔 (민수기 4:12)
❺ 미디안 군대를 300명의 군사들로 무찌른 하나님의 용사 (사사기 7:1-8)
❼ '결혼한 여자', '기혼의'라는 뜻으로 유다백성이 하나님의 신부(백성)가 될 것이라는 예언적 이름 (이사야62:4)

정답은 72p에서 찾아 보세요!

글자찾기

'선한 청지기'를 찾아라!

11월에는 '청지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래 표에서 '선한청지기'를 찾아보세요.(1개)

선	지	한	선	기	청	지	기	지	선	한	지
한	기	선	청	지	한	청	한	청	기	청	기
선	청	선	한	선	기	지	선	한	청	기	선
한	지	한	청	기	지	한	청	청	선	한	지
지	청	선	한	청	선	기	지	선	청	지	선
선	한	지	선	지	기	선	선	한	기	선	한
기	선	한	기	청	청	지	기	청	지	청	기
한	청	지	선	한	지	한	지	기	기	선	지
지	선	한	지	선	청	기	선	청	한	지	한
기	한	지	지	선	지	지	한	선	지	청	선
청	선	한	청	한	지	청	청	청	기	선	지
선	지	청	기	청	선	한	선	한	지	한	지
한	지	기	선	지	기	청	지	기	선	청	선
청	선	청	기	한	지	한	청	지	기	지	한
선	한	청	기	선	청	기	청	한	선	기	청

정답은 72p에서 찾아 보세요!

			❶ 모	세		
			❷ 압	살	롬	
			평			
❸ 선	한	❹ 청	지	❺ 기		❼ 뿔
지		색		❻ 드	보	라
자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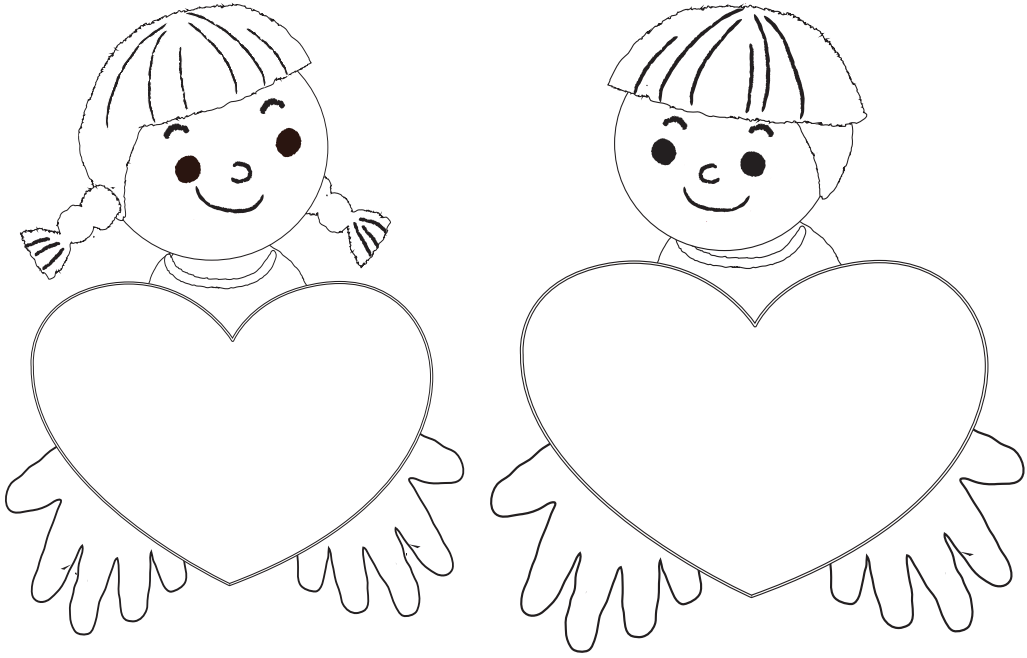
선	지	한	선	기	청	지	기	지	선	한	지
한	기	선	청	지	한	청	한	청	기	청	기
선	청	선	한	선	기	지	선	한	청	기	선
한	지	한	청	기	지	한	청	청	선	한	지
지	청	선	한	청	선	기	지	선	청	지	선
선	한	지	선	지	기	선	선	한	기	선	한
기	선	한	기	청	청	지	기	청	지	청	기
한	청	지	선	한	지	한	지	기	기	선	지
지	선	한	지	선	청	기	선	청	한	지	한
기	한	지	지	선	지	지	한	선	지	청	선
청	선	한	청	한	지	청	청	청	기	선	지
선	지	청	기	청	선	한	선	한	지	한	지
한	지	기	선	지	기	청	지	기	선	청	선
청	선	청	기	한	지	한	청	지	기	지	한
선	한	청	기	선	청	기	청	한	선	기	청

11월 QT STICKER

부 학년 반

이름 :

GOD'S TIME	1	2	3	4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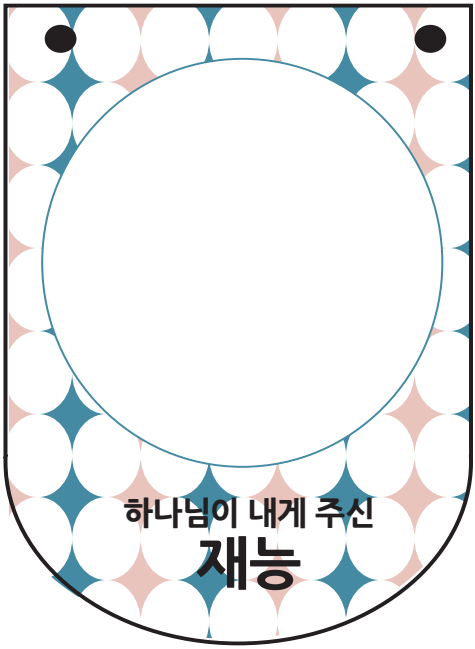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누구에게 베풀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적어보아요!

-누구에게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재능 가렌더 만들기

재능 가렌더 만들기